

2023년 보험산업 수정 전망

요약

2023년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5.4% 감소(2021년 대비 5.6% 증가)한 125.5조 원,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중심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하여 125.4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2020년 이후 보험회사 간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제·금융 불확실성 지속, 영업 경쟁 심화, 회계제도 변화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보험회사는 더욱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시기로 보임

1. 경영 환경

○ 서비스업 회복과 견조한 고용상황으로 인해 최근 주요국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으나, 근원물가 압력 지속 및 통화긴축 기조 유지로 인해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은 여전히 부진한 반면, 민간소비 회복으로 서비스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는 약화되고 있음
- 미국과 유로존의 근원물가는 여전히 5%대로 하반기에도 통화긴축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통화긴축 여파로 인해 한계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증가하고 금융불안이 재현될 여지가 있음
- 주요국의 통화정책 이외에도 미·중 대립, 중국의 부동산발 경기하방 위험, 지정학적 위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점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최근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Pivot) 기대로 인해 주가 회복, 달러 약세, 장기 금리 상승 등 금융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금융여건 개선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 금융여건 개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가 소멸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야 하나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

CEO Brief

-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금리, 환율 전망의 편차가 여전히 크며,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임을 방증함
- 코로나19 이후 대형사 중심의 시장점유율 경쟁이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최근 더 크게 나타남
- 생명보험 상위 3개사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2020년 36.8%에서 2023년 1분기 63.2%로, 장기손해보험 상위 5개사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2020년 61.7%에서 2023년 1분기 83.3%로 확대됨
- 본고는 작년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전망 이후 변화된 경제·금융·영업 환경을 고려하여 보험산업을 수정 전망함
- 지난 전망의 예상보다 2023년 경제·금융 환경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하며, 2023년 상반기에 예상보다 강했던 영업 경쟁은 하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함

2.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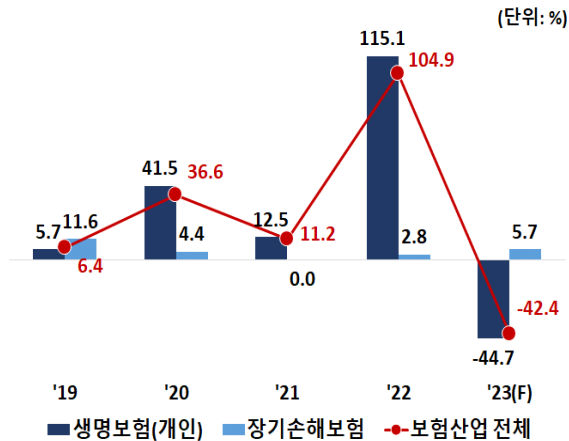
- 2023년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규모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44.7% 감소(2021년 대비 18% 증가)한 14.2조 원,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는 5.7% 증가한 1.3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 2022년 생명보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는 하반기 대규모 일시납 저축보험 판매로 인해 전년 대비 115.1% 증가한 25.7조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이와 같은 대규모 일시납 초회보험료 증가는 없을 것으로 전망함
 - 2012년과 2022년 일반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의 일시납 초회보험료 규모가 유사한 것을 감안하면(2012년 25.8조 원, 2022년 23.7조 원), 유동성 확보 목적의 저축보험 금리경쟁이 재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종목별로 보면, 생명보험은 보장성보험, 일반저축성보험, 변액저축성보험 모두 초회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및 질병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초회보험료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2023년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5.4% 감소(2021년 대비 5.6% 증가)한 125.5조 원,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중심으로 전년 대비 4.4% 성장하여 125.4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를 종목별로 보면,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신규 판매 축소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질병보험 판매가 확대되어 2.0% 성장한 48.9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CEO Brief

- 일반저축성보험은 전년도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25.0% 감소한 33.9조 원, 변액저축성보험은 주식시장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로 9.6% 감소한 10.2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를 종목별로 보면, 장기손해보험은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4.8% 성장한 64.8조 원,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하와 온라인채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2% 성장에 그쳐 21.1조 원, 일반손해보험은 배상책임, 종합, 기타특종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한 13.7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함
- 2020년 이후 보험회사 간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제·금융 불확실성 지속, 영업경쟁 심화, 회계제도 변화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금융 환경이 악화될 경우 수익성과 건전성이 열위에 있는 회사들의 성과가 더 악화될 것임
 - IFRS17 사전공시를 분석하면,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간, 산업 내 보험회사 간 당기순이익의 편차가 IFRS4 기준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보험회사는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회계제도로 인해 성과가 경제·금융 변수에 더욱 민감해진 것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못할 경우 자금조달 및 자산운용 여건 악화, 투자형 보험상품의 신규판매 둔화 장기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부실 자산 확대, 보험 수요 감소 및 해지 증가 등이 일어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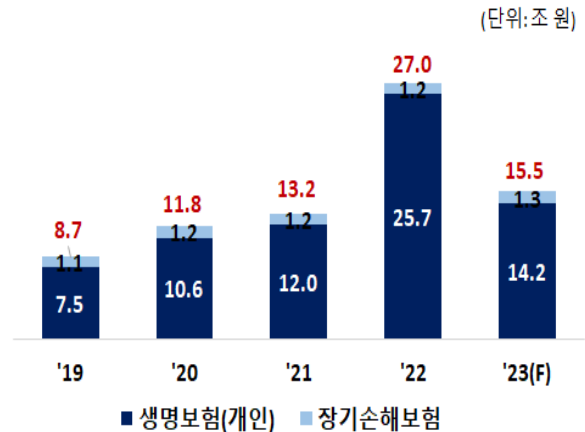
조영현 연구위원
youngcho@kiri.or.kr

〈부록 그림 1〉 초회보험료 증가율 전망



주: 생명보험은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이며,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그림 2〉 초회보험료 규모 전망



주: 생명보험은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을 제외한 개인보험이며,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기준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장성 ²⁾	46.1	3.8	45.8	-0.7	47.9	4.5	48.9	2.0
일반저축성 ³⁾	34.7	9.8	32.0	-7.8	45.1	40.9	33.9	-25.0
변액저축성 ⁴⁾	15.4	-2.3	16.4	6.2	11.3	-30.9	10.2	-9.6
기타 ⁵⁾	0.7	-2.1	0.8	1.1	0.8	0.7	0.8	1.1
퇴직연금	22.6	-8.5	23.9	5.8	27.5	15.5	31.8	15.4
생명보험 합계	119.6	2.0	118.8	-0.6	132.7	11.6	125.5	-5.4
(퇴직연금 제외)	97.0	4.8	95.0	-2.1	105.1	10.7	93.7	-10.8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2) 보장성에는 종신보험, CI, 건강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포함함

3) 일반저축성에는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등을 포함함

4) 변액저축성에는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등을 포함함

5) 기타에는 일반단체보험을 포함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CEO Brief

〈부록 표 2〉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조 원, %)

종목	2020		2021		2022		2023(F) ¹⁾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장기손해	55.9	5.3	58.8	5.2	61.8	5.0	64.8	4.8
개인연금	3.0	-9.1	2.6	-13.3	2.2	-15.9	2.0	-7.9
자동차	19.6	11.6	20.3	3.7	20.8	2.4	21.1	1.2
일반손해	10.7	8.3	11.6	8.8	12.8	10.0	13.7	7.0
퇴직연금	13.1	11.4	14.3	9.1	22.5	57.4	23.9	6.0
손해보험 합계	102.3	7.0	107.7	5.3	120.1	11.5	125.4	4.4
(퇴직연금 제외)	89.2	6.4	93.4	4.7	97.6	4.5	101.6	4.1

주: 1) 보험연구원 전망치(F)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Outlook Update for Insurance Industry in 2023

ABSTRACT

In 2023, life insurance premiums are projected to decline by 5.4% compared to 2022, reaching 125.5 trillion KRW due to the base effect. Non-life insurance premiums are expected to grow by 4.4%, amounting to 125.4 trillion KRW, primarily driven by long-term and general non-life insurance. Insurers have experienced divergent trends in growth, profitability, and solvency since 2020, which are expected to continue under economic uncertainties, intensified sales competition, and accounting standard change.

1. Business Environment

While advanced countries recently reported higher-than-expected growth rates centered on the recovery of service sectors and labor markets, economic uncertainty is persistent due to core inflation pressures and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In addition, ongoing concerns could intensify economic uncertainty, including U.S.-China disputes, potential downside risks from China's real estate crisis, and the Russia-Ukraine War.

The recovered stock prices, weakened dollars, and rising long-term interest rates imply that the financial conditions have improved based on the expectation of a pivot in monetary policy. However, it is hard to ensure that such favorable financial environments will continue as core inflation remains high under circumstances where inflation needs to slow down.

CEO Brief

Meanwhile, large insurance companies in Korea are competing to secure market share after Covid-19. In the first quarter of 2023, the market shares by initial premiums have markedly expanded for the three largest life insurance companies and the five largest non-life ones. In the following section, we revised our 2023 forecast announced last October, considering changes in the economic, financial, and sales environment.

2. Insurance Premiums Forecast

In 2023, initial premiums of individual life insurance are forecast to decrease by 44.7% compared to 2022, amounting to 14.2 trillion KRW, while those of long-term non-life insurance are expected to grow by 5.7% to 1.3 trillion KRW. The marked expansion of initial premiums of individual life insurance in the second half of 2022 was from the high volume of sales in single premium savings-type products, but it would not be the case for 2023. In life insurance, the initial premiums of protection-type insurance, general savings-type insurance, and savings-type variable insurance are predicted to decline. On the other hand, initial premiums of accident and sickness insurance and car insurance are expected to increase.

In 2023, life insurance premiums are projected to decline by 5.4%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mounting to 125.5 trillion KRW due to the base effect. In detail, protection-type products are expected to experience a growth of 2.0%, reaching 48.9 trillion KRW. This growth can be attributed to the extended sales of health and disease policies, despite the contraction in new sales of whole life insurance products. Premiums of general savings-type insurance are predicted to decline by 25.0%, reaching 33.9 trillion KRW due to the base effect caused by the significant growth a year earlier. Savings-type variable insurance is expected to reduce by 9.6%, reaching 10.2 trillion KRW, with low demand from individual

CEO Brief

investors resulting from the continued volatility in the equity markets.

Non-life insurance premiums are expected to grow by 4.4%, reaching 125.4 trillion KRW, primarily driven by long-term and general non-life insurance. In detail, the growth rate of long-term non-life insurance premiums is predicted to be 4.8%, reaching 64.8 trillion KRW, primarily driven by accident insurance and drivers' insurance. Auto insurance premiums are forecast to increase by 1.2%, reaching 21.1 trillion KRW due to premium cuts and expansion of online channels. General non-life insurance premiums are expected to expand by 7.0%, reaching 13.7 trillion KRW with the growth of liability, umbrella, and specialty insurance.

Insurers have experienced divergent growth, profitability, and solvency trends since 2020, which are expected to continue under economic uncertainties, intensified sales competition, and accounting standard change. In such uncertainties, insurers should plan business strategies based on a conservative scenario considering the increased sensitivity of business performance to economic and financial variable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ccounting standard.

Younghyun Cho, Research Fellow
youngcho@kiri.or.kr